2026년1월 경매시장 동향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Korea Auto Auction Association

2026년 1월 자동차 경매시장 개요

지난달 보고서에서는 지난 4년간의 월별 데이터를 활용해 경매시장의 계절적 특성과 구조적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규모와 경매 출품 비중 간의 관계, 그리고 경매 출품 비중과 낙찰률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경매시장이 중고차 전체 시장의 성장 흐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출품 물량의 확대가 반드시 거래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구조적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번 달 보고서는 이러한 분석에 2026년 1월 한 달의 경매 출품 및 낙찰 데이터를 추가로 반영하였다. 다만 월별 자료의 특성상 단일 월의 데이터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확인된 상관관계나 구조적 특성이 유의미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상관관계의 재확인보다는, 경매시장의 내부 구조와 역할 변화에 보다 초점을 맞춘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매 낙찰대수 가운데 상당 비중이 수출 목적 거래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국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와 경매 출품 간의 연계 구조를 함께 고려하여 최근 경매시장 물량 변화의 성격을 구분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최근의 낙찰대수 변동이 국내 유통 수요의 회복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수출 수요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결과인지를 구분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단순한 낙찰대수 증감에 대한 해석을 넘어, 경매시장의 '체력'과 '역할 변화'를 진단하고 향후 시장 흐름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2026년 1월 경매 출품대수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매매상품용 이전거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는 전월 대비 14.2% 감소한 반면, 경매 출품대수는 5.6% 감소에 그치며 출품비중은 33.8%로 오히려 추가 상승하였다. 이는 단기적인 거래 위축 국면에서도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물량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년동월 대비로도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가 20.1% 증가한 가운데, 경매 출품대수는 31.3% 증가해 출품비중이 뚜렷하게 확대된 모습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수치 변화의 이면에서 어떤 구조적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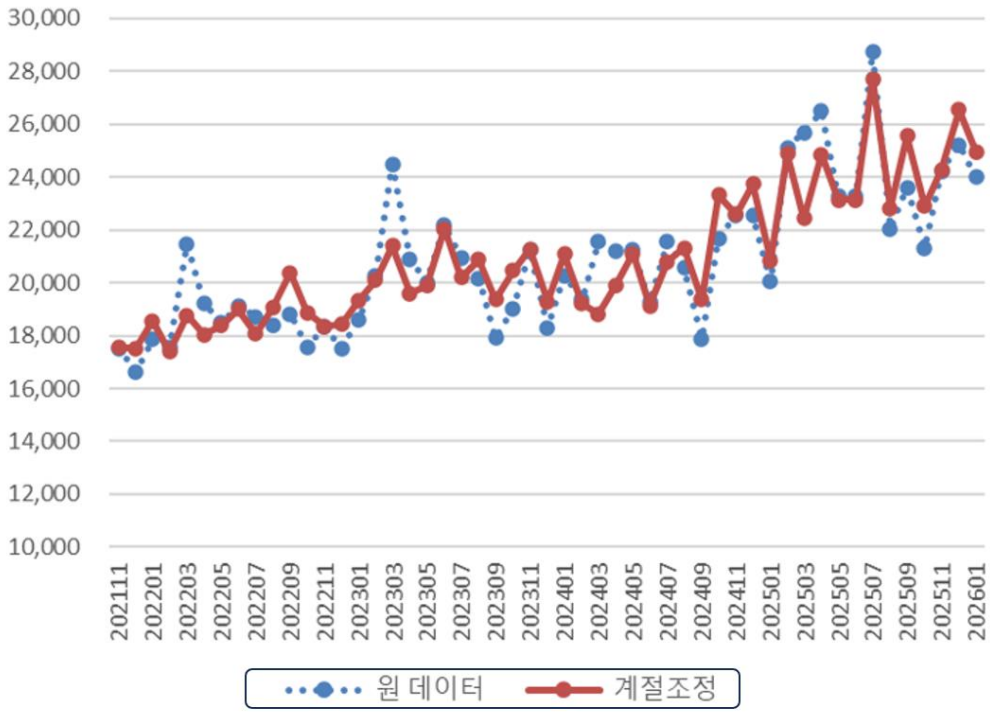
1. 경매 낙찰 대수 추세

<그림 1>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의 월별 경매 낙찰대수를 원자료와 계절조정 기준으로 함께 제시한 것이다. 2026년 1월 경매시장 낙찰대수는 원자료 기준 23,995대로 전월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계절조정 기준에서도 낙찰대수는 24,957대로 전월 대비 6.0% 감소해,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다만 이러한 하락을 단순한 시장 위축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원자료와 계절조정 기준 모두 약 19.7%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경매시장의 절대적인 거래 수준은 여전히 과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의 감소가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2025년 하반기 고점 형성 이후 나타난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중장기 흐름에서 보면 경매시장의 구조적 체력은 지난 수년간 뚜렷하게 강화되어 왔다. 계절조정 기준 경매 낙찰대수는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승하며, 2025년에 들어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었고, 2026년 1월 역시 이러한 레벨 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계절조정 기준의 월별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경매시장이 단순한 거래 채널을 넘어 국내 중고차 유통과 수출 수요 변동을 흡수하는 조정 장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단기적인 낙찰대수 증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경매시장이 어떠한 수요를

흡수하며 시장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조적 해석이며, 이는 향후 수출 및 국내 유통 여건 변화가 경매시장 변동성으로 어떻게 전이될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그림 1. 경매낙찰 월별 추세



출처)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H.P(www.aaa-korea.com)

2. 경매 출품 대수로 본 시장 유입 압력

지난달 보고서에서는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대비 경매 출품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매 낙찰율이 낮아지는 음의 관계가 뚜렷하게 관찰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출품 물량의 증가가 곧바로 낙찰 확대로 이어지지 않음을 시사하며, 그 배경에 양질 차량의 출품 부족이 있는지, 또는 경매 참여 업체들의 판매·소화 능력(판매력)에 제약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진단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달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장해, 경매 출품 대수 자체와 그 원인이 되는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경매 출품대수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내는 출품 압력 지표와, 출품된 물량이 실제 낙찰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전환 효율 지표를 정의해 분석하였다. 다만 본 보고서는 해당 지표를 최초로 제시하는 단계인 만큼, 개별 수치의 단기적 변동보다는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맞춰 해석하고, 향후에는 노이즈를 제거한 공식 지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1. 출품 압력 지표

경매시장에 출품되는 차량 수는 기본적으로 매매상품용으로 거래되는 중고차 거래 규모에 의존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를 경매 출품에 대한 유입 압력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매 출품대수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2>는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대비 경매 출품 비중을 통해 시장 유입 압력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의 상단 패널은 경매 출품대수(Y축)와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X축) 간의 관계를 스캐터플롯으로 제시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72.5%(결정계수 5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가 100대 증가할 때마다 경매 출품대수는 약 37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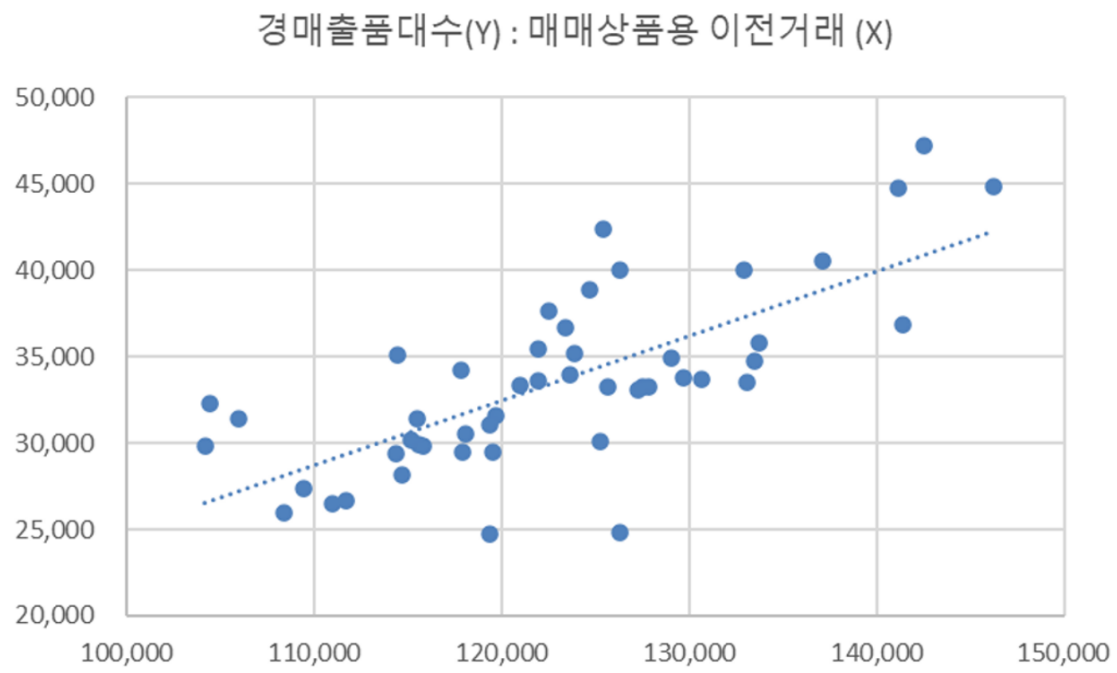
이는 최근 경매시장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흐름에 밀접하게 연동되며, 구조적으로 높은 출품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전체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을 이상치로 판단해 제외하였으며, 회귀방정식의 *F*값과 *p*-value는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본 보고서의 성격을 감안해 수식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소화하였다.

$$\text{경매출품대수} = -12,544 + 0.3748 \times (\text{매매상품용 이전거래대수}), \qquad R^2 =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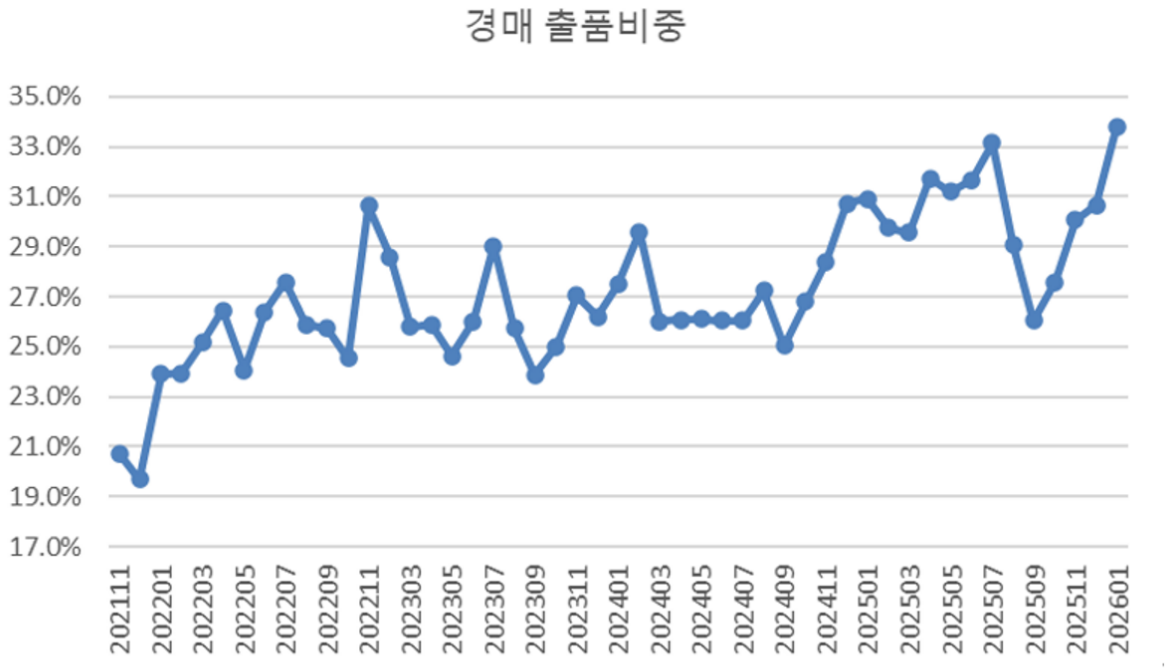
<그림 2>의 하단 패널은 월별 경매 출품 비중의 추이를 보여준다. 2021년 말 기준 경매 출품 비중은 20% 내외에 머물렀으나, 2022년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해 25%를 상회하는 수준이 일반화되었고,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30% 내외의 높은 출품 비중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2025년 들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규모가 확대되는 국면에서도 경매 출품대수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출품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구간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도매 유통 물량 가운데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비중이 과거보다 구조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경매시장이 중고차 유통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매매상품용 이전거래와 경매 출품 대수



출처)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H.P(www.aaa-korea.com)/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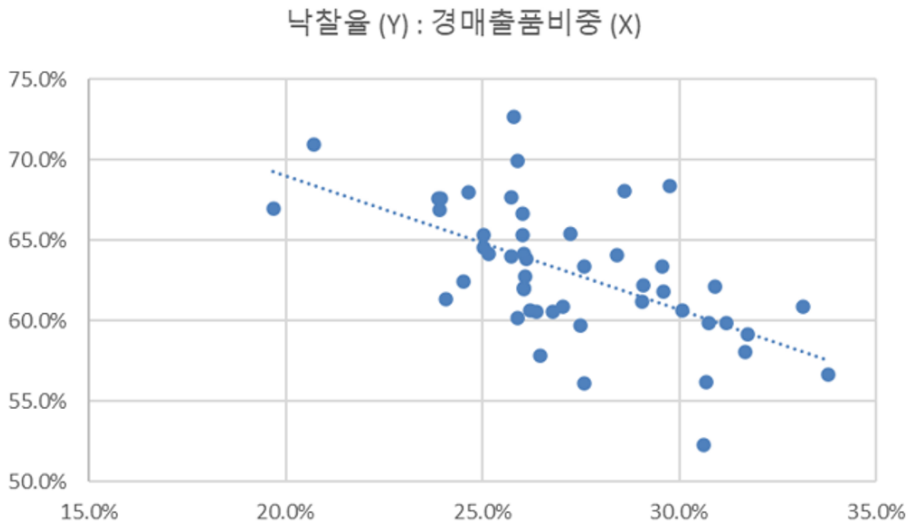


출처)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H.P(www.aaa-korea.com)/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2-2. 전환 효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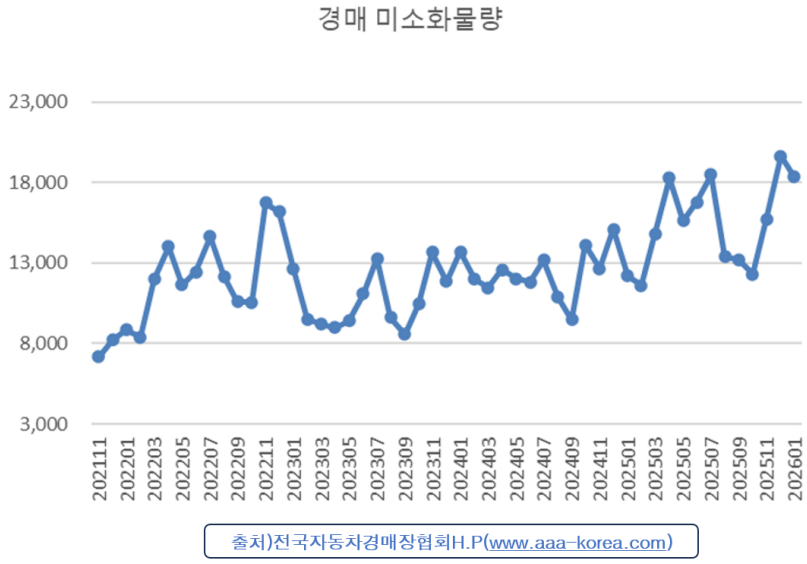
그렇다면 경매시장으로 출품되는 차량들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낙찰로 이어지고 있을까? 본 보고서는 경매 출품비중과 낙찰율 간의 관계를 경매시장의 전환 효율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출품된 물량이 실제 거래로 소화되는 정도를 점검하고자 한다. 다만 본 절에서는 해당 지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단계인 만큼, 개별 수치의 엄밀한 해석보다는 전반적인 흐름과 구조적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림 3> 경매출품비중 (X축)과 경매낙찰율(Y축) 스캐터플롯



출처)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H.P(www.aaa-korea.com)/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그림 4> 월별 경매 미소화 물량 추세



출처)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H.P(www.aaa-korea.com)

<그림 3>은 경매출품비중(X축)과 경매낙찰율(Y축) 간의 관계를 나타낸 스캐터플롯이다. 전반적으로 경매출품비중이 높아질수록 낙찰율이 낮아지는 음의 관계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앞서 <그림 2>에서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가 증가할수록 경매 출품대수가 확대되는 명확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품 확대가 낙찰률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낙찰 효율의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현행 경매 구조 하에서 출품된 차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경매 참여자들의 판매·소화 능력, 즉 오퍼레이션 측면의 제약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4>는 경매 출품대수 가운데 낙찰로 이어지지 못한 미소화 물량의 추이를 보여준다. 경매 미소화 물량은 2021년 약 8천 대 수준에서 2026년 1월에는 약 1만 8천 대 수준까지 증가하며,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확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미소화 물량의 증가는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으나, 출품 압력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환경에서 경매시장의 전환 효율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신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 수출 말소와 낙찰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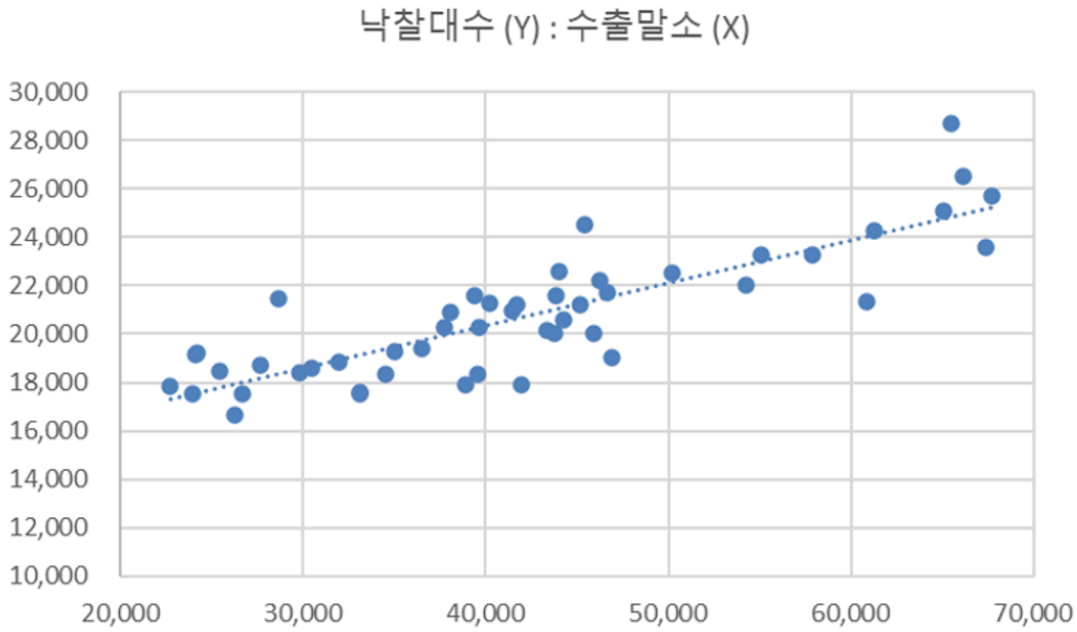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물량 가운데 상당 비중은 수출을 목적으로 거래된다. <그림 5>는 수출 말소 대수와 경매 낙찰대수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스캐터플롯이다. 시간적 순서를 기준으로 보면 낙찰 이후 수출 말소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거래구조에서는 수출선을 사전에 확보한 상태에서 경매 낙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본 분석에서는 수출 말소 예정 대수를 독립변수(X),경매 낙찰대수를 종속변수(Y)로 설정하였다.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변수 간에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된다. 회귀분석 결과 수출 말소 대수가 증가할수록 경매 낙찰대수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정계수(R^2)는 0.71로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최근 경매시장에서 형성되는 낙찰 물량의 상당 부분이 수출 수요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즉, 경매 낙찰의 양적 변동은 국내 중고차 유통 여건뿐만 아니라, 해외수출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구조로 해석 가능함.

$$\text{경매낙찰대수} = 13,359 + 0.1751 \times \text{수출말소대수}, \qquad R^2 = 0.71$$

종합하면, 현재 경매시장은 중고차 시장 전반과 강한 연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낙찰로 이어지는 핵심 메커니즘은 수출 말소 수요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매업체들이 수출 중심의 비즈니스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국내 유통이나 소매 판매 등 다른 수요 채널과의 연결은 아직 충분히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경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수출 중심 구조를 유지하는 한편, 낙찰 수요 기반을 보다 다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림 5> 수출말소 대수와 경매 낙찰대수 스캐터플롯



출처)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H.P(www.aaa-korea.com)/국토교통부/TS(교통안전공단)

3. 요약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2026년 1월 데이터를 포함해 경매시장 낙찰 추세와 출품 구조, 그리고 낙찰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매 낙찰대수는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나, 전년동월 대비 기준에서는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어 경매시장의 절대적인 거래 수준은 과거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하락이 구조적인 위축이라기보다는, 2025년 하반기 고점 형성 이후 나타난 자연스러운 속도 조절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출품 구조를 살펴보면,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 대비 경매 출품비중은 중장기적으로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이후에는 30% 내외의 높은 수준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에는 매매상품용 중고차 거래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에서도 경매 출품대수의 감소폭은 제한적이어서,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물량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중고차 유통 과정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이 경매시장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출품 물량의 증가가 낙찰 확대로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경매 출품비중이 높아질수록 낙찰율이 낮아지는 음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미소화 물량 역시 중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매시장이 구조적으로 높은 출품 압력에 노출된 가운데, 출품된 물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전환 효율이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경매 낙찰대수와 수출 말소 대수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현재 경매시장에서 형성되는 낙찰 물량의 상당 부분이 수출 수요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수출 중심의 경매 비즈니스가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국내 유통이나 소매 판매 등 다른 수요 채널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종합하면, 현재 경매시장은 절대적인 거래 규모 측면에서는 과거 대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출품 압력의 구조적 확대와 전환 효율의 제약, 그리고 수출 수요에 대한 높은 의존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국면으로 판단된다. 향후 경매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물량 확대보다는 출품 구조의 질적 개선과 낙찰 수요 기반의 다변화, 그리고 경매 오퍼레이션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산하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연구소장	부소장 (운영총괄)	수석 객원연구원
조성봉	김원태	고석빈

이 분석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상담은 불가하며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또는 이메일 **info@aaa-korea.com**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